

철쭉이 피면 보성군으로! 5만여 명 발길 이끈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만명이 반한 봄빛 능선, 눈부신 바다 ‘일림산’ 연분홍 대장관

보성군은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웅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가 역대 최대인 5만여 명의 방문객과 함께 성황리에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손석의)가 주최했으며, 철쭉 개화 시기와 맞물려 전국의 상춘객들이 대거 몰리며 보성의 봄철 대표 축제로서 주목받았다.

해발 667m의 일림산은 호남정맥의 끝자락이자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명산으로, 산 전체 150ha를 뒤덮은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하다. 철쭉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산책길과 푸른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절경은 올해도 수많은 관람객에게 잊지 못

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4일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산신제례 행사는 일림산 정상에서 푸르미에 술단의 사물놀이와 함께 열렸으며,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한중길 웅치면민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행사장 입구에는 철쭉 포토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목공 놀이 체험, 편백나무 자르기, 차나무 화분 만들기, 보성 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돼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켰으며, 연일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손석의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기후가 따뜻하고 생육 조건이 좋아 철쭉이 유독 선명하고 풍성하게



피어올랐다.”라며, “앞으로도 일림산 철쭉 문화행사를 국내 대표 봄꽃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는 매년 5

월 초 철쭉 만개 시기에 맞춰 열리며, 가족 나들이, 봄꽃 관광을 즐기기에 최적의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완도치유페이 인기’ 3천 명 이용, 이벤트 진행

3,000번째 방문객에 특산품 전달, N번째 이벤트 계속 진행

완도군이 5월 2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이’ 3,000번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완도 치유 페이’는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으로 지난 3월 1일 첫 번째 방문객 환영 이벤트를 시작한 이후 1,000번째, 3,000번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벤트는 서정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임원이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에서 완도 치유 페이 3,000번째 이용객에게 완도 치유 페이 쿠폰과 특산품(완도 멸치)을 전달하고 완도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군은 앞으로도 ‘완도 치유 페이 N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벤트의 주인공이 된 A 씨는 “여행도 알차게 하고 완도 치유 페이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이벤트 행운까지 얻게 되어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완도는 자주 찾고 싶은 곳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완도를 방문해 주신 관광객 한분 한분의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치유페이’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로 타 지역 관광객은 완도 내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 등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완도 치유 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 (<http://www.wdfesta.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나주시가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섰다.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이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 한도 역시 크게 늘렸다 품목당 최대 3백만 원, 농가당 최대 5백만 원이었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 지원 확대

최저가격 기준 지원 한도 상향… 농가 소득안정 기대

던 한도를 품목당 최대 5백만 원,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 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기준과 지원 한도의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과 농가

의 안정적 소득 보장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들은 계통 및 공동 출하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은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신청 품목의 농산물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농업 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제3회 강진 수국길축제, 음식부스 운영자 모집

아름다운 수국이 만발하는 강진에서 맛과 멋을 동시에 선보이다

며 더위를 잊게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공개 모집하는 판매시설은 음식부스 1개소이며, 만 19세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필한 업소 또는 축제 10일 전 영업신고 및 임시 주류 판매 면허 신고가 가능한 자로 1순위는 강진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2순위는 강진읍을 제외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순위는 관외 거주자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

선정 기준은 수국축제 및 여름축제 컨셉 반영 여부, 특산물 반영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메뉴 구성과 가격의 적정성, 축제 및 행사 참여 경력도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

제3회 강진 수국길축제 음식부스 운영자 모집중

5. 7.(수) ~ 20.(일) / 14일간

장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음위임

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공고 > 고시/공고

☎061-430-3193

고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광군 고향사랑기금,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거동불편 어르신 돌봄 강화

영광군이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이 2분기에 접어들며,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질병·부상으로 퇴원, 장기요양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 중 중점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 중이다.

지난 1분기 총 9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지난 3월 동행서비스를 이

용한 어르신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늘 불안했는데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함께 있어 마음이 놓인다”라며, “검진도 잘 받고 약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전제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기부금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어르신의 발걸음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 지원사업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성군, 전 구간 가로수 3만 2000여 그루 중점 관리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가지치기, 보식 등

장성군이 경관 향상과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국도 1호선 등 215km 구간 가로수 전 노선을 중점 관리한다.

대상은 군목인 단풍나무를 비롯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36개 노선 가로수 3만 2000여 주다. 생육주기에 따라 가지치기, 겹손 제거, 보식작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읍 영천리 단풍나무 등 4개 노선 가로수 3000여 주는 앞선 3월에 관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병해충 방제작업은 10월까지 총 3회를 실시해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훼손이나 배수 불량 등으로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간별 보식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나무를 심는다.

장성읍~축령산 편백숲 방면 국도 13호선 편백나무 가로수길은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주변 정리를 실시해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가로수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민과 방문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